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적인 문제다. 그리고 죽음의 경계는 사후 세계라는 미지의 영역을 만들어 수많은 종교의 가장 강력한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삶의 종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히어애프터’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한 영화다.

미국에 살고 있는 조지(맷 데이먼)는 사후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원치 않았던 능력 때문에 사랑하던 여인마저 떠나보낸 채 남모름 고통을 겪는다.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 갑작스런 쓰나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한 마리

올어지는 아름다운 사운드트랙이 와닿는다. 특히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오르면서 시작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선율은 영화가 보내주는 메시지와 더불어 관객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은 1899년부터 1901년 사이에 작곡한 작품으로, 라흐마니노프의 대표곡임은 물론 수많은 고전 영화에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된, 매우 대중적인 멜로디를 가진 곡이다. 재미있게도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자작자연 녹음(naxos)도 남아있다. 음질은 열악하지만 작곡가 자신의 해석을 직접 듣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영화 ‘히어애프터’ 중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죽음이 있기에 삶은 아름답다

(세실 드 프랑스)는 그 후 사후세계를 파헤치며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던 기자로서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한편, 런던의 소년 마커스(조지 맥라렌·프랭키 맥라렌)는 사고로 자신의 반쪽과 같은 쌍둥이 형을 잃고 삶 저편 세계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찾아 헤맨다.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접한 세 명의 인물을 한꺼번에 만나게 한 다음, 이틀로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영화적 주제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극을 진행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친절하게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무거운 주제를 담백하고 잔잔하게 풀어내는 솜씨는 그가 왜 할리우드에서도 작가주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영화를 보다보면 의외로 영상과 잘 어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키릴 콘드라신의 지휘로 모스크바 필하모닉과 함께 협연한 대가 음반은 이 곡의 대표적인 명연으로 손꼽힌다. 이 곡이 가진 낭만성을 극대화시킨 연주로 아주 달콤하고 섬세하며 아름답게 연주한다. 최근에는 ‘레전드’ 시리즈라는 고음질 리마스터링 음반으로 재발매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음반은 레이프 오베 안즈네스의 음반(EMI)이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반주로 녹음되었는데, 첫 음부터 마지막 코다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확신에 가득 찬 연주다. 리허트의 강인함, 루빈슈타인의 영동함, 아쉬케나지의 서정미, 챔버만의 테크니컬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대단한 연주다. 특히 2악장의 유장한 협연을 듣고있노라면 삶은 결국 아름답고 가치있다고 나지막하게 말하는 영화의 메시지와 함께 가슴 한 편을 저릿하게 울려온다.



“춤으로 얻은 행복 이제 후배들에 물려줘야죠”

■광주 무용계에 이끄는 김미선·박선희·박종임씨

지난달 광주 무용계에 남보가 전해졌다. 제 21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 임지형 광주현대 무용단이 대통령상과 연기상·안무상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오른 것. 7번째 대통령상 수상. ‘무향(舞鄕) 광주’의 명성을 제대로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로얄발레단에 이어 연이어 대통령상을 받아 화제가 됐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토양 위에 30~40대 젊은 무용인들이 이뤄낸 성과들이다.

이번 대회에서 안무상과 연기상을 동시에 받은 김미선(33),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작품 ‘티핑 포인트’를 안무한 박선희(42), 2009년 전국무용제 금상과 안무상을 수상한 박종임(38)씨 등 최근 광주무용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세 사람을 만났다.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들은 전국무용제를 준비하며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무용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 우선은 공부에 매진하려고 합니다.”(김미선)

세 사람은 인연이 깊다. 일단 모두 조선대학교 무용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강사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같은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종임씨와 미선씨의 관계는 더 두텁다. 2009년 종임씨가 안무한 ‘천계의 공간’에서 미선씨는 처음으로 주역 무용수를 맡았고, 그 작품으로 연기상까지 수상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수상작인 ‘자메카’를 제작할 때도 힘들 때면 종임씨는 임지형 교수와 함께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였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도 비슷하다. 종임씨는 올해 동산대 생활체육학과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미선씨는 지난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선희씨는 지난해 전남대 스포츠

김미선 올해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등 3관왕

박선희 국무성 초청 뉴욕시티 발레단 등 탐방

박종임 박사과정 입학하며 학업·지도자 병행

“대작을 만드는 것은 평소 애호지 못한 경험이라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진짜 하루에도 몇번씩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싶죠. 하지만 일단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 희열감을 느끼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죠. 꼭 마약 같아서 쉽게 끊을 수가 없죠.”(박종임)

“마흔살까지 무대에 섰으니 수십년간 춤추는 것 밖에는 모르고 살았죠. 무용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활동하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박선희)

“안무자의 의도를 무대에서 구현하는 무용수로 주로 활동했던 터라 리더가 꽤 처음부터 하나까지 일일이 다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지만 저에게

심리학과 박사 과정을 마쳤다.

선희씨는 특히 올해 좋은 경험을 했다. 지난 9월 미국 국무성이 진행한 ‘international visitor program’에 초청돼 발레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의 유명 발레단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뉴욕시티 발레단, 아메리카 발레 씨어터,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미국의 3대 발레단을 방문한 선희씨는 선진 발레단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국을 받았고, 무엇보다 광주와 상황이 비슷한 소규모 민간 발레단들의 운영 시스템을 보면서 ‘광주’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고민하게 됐다.

안무상의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잡은 미선씨는 올 겨울 뉴욕으로 날아가 다양한



전국무용제에서 잇따라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지역 무용계를 견인하고 있는 박선희·김미선·박종임(사진 왼쪽부터)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역시 안무상을 받았던 종임씨는 일본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세 사람은 작품성을 검증받고 많은 제작비를 투자한 대작들이 꾸준히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일회성 공연에 그쳐버리고 마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젊은 무용인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는 점도 아쉽다고 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희가 후배들을 위해 많은

것을 물려줄 시점인 것 같아요. 우선 저희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서울 무용계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또 좋은 공연도 많이 봐야죠. 직접 발로 뛰고 보고 느낀 것을 제자들,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박선희)

큰 그늘을 드리우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 이제 막 가지들 치기 시작한 젊은 무용인들의 약진이 지역 무용계를 더욱 튼실하게 할 것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리로 말하다’ 오영미 연주회 오늘 동산아트홀

오영미 피리 연주회가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피리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신디사이저와 함께하는 ‘상영산’을 비롯해 기타·타악기·신디사이저가 어

우려진 창작곡 ‘나무가 있는 언덕’, 해금과 호흡을 맞춘 ‘동행’, ‘피리로 말하다’ 등을 들려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대취타 전수자인 오씨는 전북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교육

대와 광주예고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관현악단 동료인 이왕재·김광숙·김하아·이현신·박미영·이정숙씨 등이 함께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일 조각가 김행신 교수 특강

광주문화재단은 13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조각가인 김행신 전남대 명예교수를 초청, ‘한국 조각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광주원로예술인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원로초청 특별강연’으로, 김 교수는 한국 근대 조각의 변명과 현주소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 - 9940

목포점 061) 262 - 9200

서울점 02) 765 - 9940

총장점 062) 227 - 9970

장흥점 080) 222 - 9975

순천점 061) 752 - 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루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